

청소년의 신뢰: 구체적 신뢰, 일반신뢰, 공적신뢰*

노자은** · 김현주***

초 록

장차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구체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연계경험은 사회의 안정성, 나아가 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반신뢰, 공적신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이 가지는 연계경험을 구체적 신뢰로 유형화하고 청소년의 일반신뢰, 공적신뢰와 더불어 신뢰유형들 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고등학생 493명을 대상으로 세 가지 신뢰유형의 수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 응답자 중 게임실험(죄수의 딜레마 게임) 참여 의향을 밝힌 3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각 신뢰 유형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설문과 실험 모두에서 청소년의 구체적 신뢰는 일반신뢰와 상호 정적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청소년의 구체적 신뢰는 공적신뢰와 의미 있는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일반신뢰와 공적신뢰 간 관계는 설문과 실험결과에서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각 신뢰 유형이 보이는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구체적 신뢰가 성인의 사적 연결망과는 다른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는 근거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신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특히 구체적 신뢰에 대한 사회자본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구체적 신뢰, 일반신뢰, 공적신뢰, 사회자본, 사회연결망분석, 죄수의 딜레마 게임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한 것임.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전공 강사,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교신저자, kimhj@cau.ac.kr

I. 서론

후기 산업사회 혹은 정보화 사회라고 불리는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가치관과 규범이 공존하고 있으나, 이러한 다양성은 상호 간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서로 분산되고 분절된 삶의 양식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공유영역이 축소되는 현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대 간, 집단 간 분절현상은 역설적이게도 이질적 집단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그러나 동일한 존재근거나 생활양식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집단과의 상호작용에는 불확실성과 통제의 불가능성이라는 근본적인 위험부담이 존재한다. 세대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동시에 그에 따른 위험부담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신뢰는 미시적 수준에서 사람들 간의 협동을 가능하게 하고,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적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유험유이다(Luhmann, 1979). 또한 신뢰는 그 수준에 따라 개인적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질서가 좌우되며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의 공존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공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꼽힌다(엄묘섭, 2007; Putnam, 1993).

한편 청소년학 분야에서는 청소년을 심리·생물학적 발달 단계상의 존재로 바라보면서 이들의 경험에 대해 오랫동안 결정론적 관점을 취해왔다(원용진, 이동연, 노명우, 2006). 그러나 최근 사회자본에 관한 전 학문적 논의의 흐름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특히 공동체 경험을 통해 구성원 간 규범에 기초한 협동을 기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는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Fukuyama, 1995)에 주목할 때 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미래 사회의 질서와 기능을 좌우할 중추적인 세대인 청소년의 신뢰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뢰의 유형 중 특히 구체적 신뢰에 대한 기존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인 일반신뢰는 '사회적 불확실성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그 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와 직결되는 공적신뢰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구체적 신뢰는 그 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Putnam(1993)의 주장을 필두로, 특정 대상들에게 고착되고 파편화된 신

되 유형으로 구분되어 공적신뢰 수준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이재열, 1998). 청소년기의 신뢰기반은 이러한 구체적 신뢰에 터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부모와의 유대감이 변화하고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해지는 등 다른 세대에 비해 청소년기의 관계 형성 기반으로 구체적 신뢰가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차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구체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연계경험이 사회의 안정성, 나아가 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반신뢰, 공적신뢰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구체적 신뢰와 일반신뢰, 공적신뢰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1) 청소년의 구체적 신뢰와 일반신뢰는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 2) 청소년의 일반신뢰와 공적신뢰는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 3) 청소년의 구체적 신뢰와 공적신뢰는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신뢰의 개념 및 특성

신뢰는 그 어느 시기, 그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특히 기존의 문화, 제도, 관계의 양상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경우 그 불안정성에 기인하여 신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신뢰는 개인들 간의 연계를 통해 획득되는 결과물 중 하나로, 이를 유형화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사회자본이다.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는 정치·경제·사회적 상호작용상의 계약이나 감시와 같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여 협력행위가 촉진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의 발전, 그리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Putnam, 1993).

신뢰는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사회 체계로부터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된다(강수택, 2003). 즉 신뢰는 이미 알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한

신뢰로 확장·전이되는 특성을 가진다(Doney, Cannon & Mullen, 1998). 이러한 신뢰의 개념과 특성에 따라 본 연구는 신뢰를 신뢰주체(청소년)의 측면에서 사회자본 그 자체가 아니라, 신뢰대상을 확장함에 따라 또 다른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으로 본다.

2. 신뢰의 유형 및 정의

1) 구체적 신뢰

구체적 신뢰란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 국한된 신뢰로, 주변 사람들과의 경험 및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가치 및 태도의 영향을 받는다(Lewis & Weigert, 1985). Rotter(1967)는 신뢰를 피신뢰자의 언행일치 여부에 대한 신뢰자의 일반적인 기대로 보고, 이러한 기대의 내용과 수준은 신뢰자의 경험이나 사회화를 통해 형성되는 개인적 특성에 의해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신뢰는 단일 차원이 아닌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차원의 융합된 형태이다(Lewis & Weigert, 1985). 이러한 차원들은 각각 신뢰할 만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신뢰관계에 놓인 존재들 간의 정서적 결속,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한 기대에 기반을 두고 스스로 모험적인 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신뢰는 사회질서 문제의 가장 핵심이며 매일의 삶을 실행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Barber, 1983; Hardin, 1995; Luhmann, 1979). Cook(2005)은 합리적 인간의 교환행위는 신뢰에 의해 가능하며, 이 때 신뢰는 지속적 관계 경험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았다. 지속적 관계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한 신뢰는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한 신뢰로 전이되며(Doney et al., 1998), 이 때 경험하는 규범, 대인신뢰, 사회연결망, 사회적 조직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고, 수정하고, 제한한다(Coleman, 1988). 즉 신뢰는 “개인의 심리성향이나 손익계산에 의한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제도적 메커니즘과 관련된 사회적 실체”이다(김우택, 김지희, 2002).

가족, 친구, 교사 등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까운 대인관계와 그 영향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박현미, 박영신, 김의철, 2007), 지배성·우월감·자기찬미(이은희, 강은희, 2003), 자살충동(김현주, 노자은, 2011)과 같은 심리적 변수 또는 학교적응(김희수, 윤은종, 2004; 오미섭,

2013), 일탈행동(정지원, 강정환, 2012)과 같은 행동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 수준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세대간 신뢰의식(김의철, 박영신, 2004), 토착심리(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이상미, 김의철, 박영신, 2006), 우리의식(장수연, 정옥분, 2005), 사회적 배제수준(김현주, 김준영, 2008) 등과 같은 사회적 변수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다루어지는 관계 변수는 신뢰의 유형 중 주로 구체적 신뢰의 개념과 가까운 것 들이다.

2) 일반신뢰

현대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낯선 사람들과의 반복되는 선택(Blau, 2002)에 의존하게 되며, 이 때 신뢰는 사회적 통제기제로 작용한다(Cook, 2005). Yamagishi와 Yamagishi(1994)에 따르면 일반신뢰란 상대방이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위험을 감수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뢰, 구체적 정보가 없는 상대에 대한 신뢰이다. 즉 일반신뢰는 사회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잘 알지 못하는 타자가 가지는 성격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이다(Newton, 1999). 이처럼 일반신뢰는 구체적 타인을 넘어선 추상적 타인에 대한 신뢰, 즉 개인의식 속에 공유된 집합적, 사회적 수준의 신뢰를 표현하기 때문에 한 사회의 문화적 신뢰 수준으로 보기에 적합하다. 일반신뢰 수준이 높으면 개인적 삶의 질 향상(Kawachi, Kennedy & Lochner, 1997)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익(Fukuyama, 1995; Knack & Keefer, 1997)과 함께 정치효능감과 효과성(North, 1990)을 높인다. 이처럼 특정 집단이나 관계의 틀을 초월한 일반신뢰는 한 사회가 개방사회로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돕기 때문에(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2001)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신뢰가 사회자본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어왔다.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을 상호 친밀감 또는 인식이 제도화된 관계, 즉 지속적 네트워크를 가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자본은 구조 내 행위자의 특정 행동을 촉진시키는 독립적 개념으로(Coleman, 1988), 경제적 발전, 개인의 복리 증진, 사회통합의 기반 강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창출·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기제로서 사회에 대한 기능주의적 요소

가 된다(우천식, 김태중, 2007; Putnam, 2000). 이로써 높은 수준의 일반신뢰는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이수인, 2010; 조기숙, 박혜윤, 2004).

일반신뢰는 그 기능과 필요성이 명확한 것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현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과 같은 규범 학문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비해 경험과학인 사회과학에서는 개념화와 측정방식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강수택,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신뢰는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는 신뢰 유형 중 하나이며 이것이 지닌 도덕적 자원의 속성(김도균, 2013)은 공적신뢰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는 한 세대인 청소년 관련 논의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3) 공적신뢰

정치적 기구나 지도자를 포함하는 정치적 체계 또는 공공기관 등 제도에 대한 믿음 행위로 발현되는 공적신뢰 수준은 곧 국가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로 사회 통합 또는 공공갈등 연구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Vaitkus(1991)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주를 이루는 제도나 상징세계의 층에서 구성원들이 보이는 신뢰의 원형은 일상 생활세계에서의 신뢰적 태도에서 발견된다고 보았다. 즉 공적신뢰는 일상세계에서 경험하는 신뢰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일반인에 대한 신뢰, 연결망 경험과 결사체 참여 경험 등이 공적신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지를 밝힌 연구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공적신뢰를 사회자본이 형성된 결과라고 본다(강내원, 2013; Brehm & Rahn, 1997; Levi, 1996). 약 20년간 수집한 26개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한 Inglehart(1989)는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신뢰 수준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양상 간 정적 관계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청소년관련연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대한 높은 관심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가치 실현에 있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의식 및 태도의 중요성이 공공연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신뢰는 이들의 법적 신뢰감(이형진, 2010), 정치의식 또는 정치신뢰(김영인, 2003; 박정서, 2012) 등 주로 공적 신뢰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시민성과 같은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근

거들로 작용한다. 이전 연구들(이용교, 이중섭, 2010; 조남익, 2008; 조남익, 이광호, 2009)이 결사체 참여의 결과로 활성화된 사회자본으로서의 공적신뢰에 관한 논의라면 본 연구는 안정적인 태도의 측면에서 사회자본으로서의 공적신뢰에 초점을 맞춘다.

4) 구체적 신뢰, 일반신뢰, 공적신뢰 간 관계

신뢰는 내재화 된 태도 또는 규범으로 시작하여 가까운 관계를 통해 생성되고, 이렇게 생성된 신뢰가 경제적 교환과 같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체제 또는 제도에 대한 태도를 결정 짓게 된다. 즉 신뢰는 민주주의 확립과 같은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본질적으로 사회적이자 규범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신뢰가 사회관계에서 반드시 긍정적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호간의 신뢰라고 해서 모두 사회자본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확인된다(박종민, 김왕식, 2006; 엄묘섭, 2007; Levi, 1996). 다수의 사회자본 연구자들은 일반신뢰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반면 구체적 신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Newton, 1999; Pharr, 2000; Putnam, 1993). 즉 가족이나 소규모 집단 또는 지역 내 굳건한 신뢰가 오히려 국가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도균, 2013). Yamagishi와 Yamagishi(1994) 또한 구체적 상대에 대한 평가에 근간하여 형성되는 신뢰는 불확실한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 이론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한국사회의 신뢰상태와 그 수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한국사회 내 일반신뢰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진단하는 반면(박종민, 2003; 박희봉, 김명환, 2000; 송경재, 2007) 구체적 신뢰인 사적 신뢰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대표적으로 이재열(1998)은 한국사회의 공적 신뢰는 미흡하게, 사적 신뢰는 과잉 상태로 파악했다. 또한 강수택(2007)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학연, 지연에 의한 파당이 강하게 형성되어 사적 신뢰 수준이 높은 반면 연줄망 바깥의 타인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와 연고주의는 신뢰와 부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수직적 집단주의의 대표적 형태로, 한국사회의 저신뢰화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

으로 꼽힌다(이재열, 1998; 이재혁, 1998; 장수찬, 2002; 이수인, 2010).

과연 구체적 신뢰는 사회자본을 저해하는가? 한국인들의 신뢰에 관해 분석한 연구자들(김의철, 박영신, 2004; 이종환, 1994; 한규석, 2000)에 따르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보이는 신뢰 의식은 '집단정체감'이라는 토착적 심리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러한 신뢰 의식이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함에 있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청소년의 사회자본으로서 구체적 신뢰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청소년은 부모, 친구, 교사 등과 구체적 신뢰를 형성할 기회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반면 일반신뢰, 나아가 제도신뢰와 관련된 결사체 참여나 활동 기회가 적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인에 비해 한국사회와 사람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박영신, 김의철, 2005)를 통해 신뢰에 관한 논의에서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자본으로서 청소년의 구체적 신뢰는 일반신뢰, 공적신뢰와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이를 구체적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명부를 작성한 후 게임실험이 이루어질 대학교 인근 구(區)에 소재한 고등학교들을 위주로 2014년 3-4월에 걸쳐 우편발송 및 직접연락을 통해 연구 참여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1차 설문을 실시할 조사집단으로 금천구, 동작구, 강서구의 6개 고등학교 내 15개 학급의 493명이, 2차 게임실험에 참가할 실험집단으로 35명이 구성되었다¹⁾.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1) 자세한 표집 절차는 노자은(2014) 참고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항

학교명	소 재	특 징	1차 설문	2차 실험
S고	동작구	남자고등학교, 1학년	70명	6명
K고	동작구	남자고등학교, 1학년	88명	2명
SY고	동작구	여자고등학교, 1학년	95명	-
D고	금천구	여자고등학교, 3학년	85명	9명
C고	강서구	남자고등학교, 1학년	78명	10명
J고	강서구	여자고등학교, 1학년	77명	8명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사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구체적 신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학급연결망분석 관련 문항과 일반신뢰, 그리고 공적신뢰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후 참가의향을 밝힌 응답자들이 실험집단으로 구성되어 설문 및 죄수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이하 PDG)에 참여하였다.

1) 학급연결망분석: 파당분석과 외향중양성 분석

학급연결망분석은 구체적 신뢰 수준이 다른 구성원들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반 친구 중 현재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친한 순서대로 2명을 지목해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따라 작성된 명단을 UCINET 6.0을 활용하여 파당분석과 외향중양성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파당은 한 연결망에서 세 점 이상으로 구성되며, 연구자가 노드간 직접 연결거리를 1로 지정하면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파당을 추출할 수 있다. 학급 내 친하다고 분명히 지목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1의 거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파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상태 자체를 넘어 청소년에게 소속감을 제공하는 사회자본이 된다. 친밀한 친구관계는 강한 유대(Granovetter, 1973)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파당 소

속 여부는 구체적 신뢰 수준을 나타낸다.

외향중양성²⁾은 한 노드와 주변 노드들이 직접 연결된 가운데 해당 노드로부터 나가는 방향의 연결을 가리키며(김용학, 2007), 이를 통해 구성원들을 지목하는 정도, 즉 ‘나는 이 친구와 친하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다른 친구들을 지목하는 정도가 낮으면서 동시에 최소 두 명 이상과 직접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구성원은 반 구성원과의 친밀한 관계 정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추출된 구성원은 구체적 신뢰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2) 게임실험: 죄수의 딜레마 게임(PDG)

게임실험은 인간의 교류행위에 있어 사회관계적 속성을 중요하게 보면서 타인의 통제 하에서 발생하는 ‘유인(incentive)행동-보상과 처벌’에 초점을 맞춰 사회갈등 및 대인관계 내 상호작용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도구로 도입·개발되어 왔다. Pruitt과 Kimmel(1977)에 따르면 게임실험의 대표적인 유용성은 상호의존성을 쉽게 명시할 수 있는 것이다. PDG는 이러한 게임실험 중 보수행렬에 기초한 유형이다.

본 실험의 보수행렬은 표 2와 같다. 피험자들은 무작위로 파트너가 될 한 사람에게 2,000원을 줄 것인지(협조), 혹은 2,000원을 빼앗아 올 것인지(배반) 파트너와 동시에 선택하게 된다. 이 때 규칙은 자신이 선택한 전략에 따라 거래가 2배가 되어 상대방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에 의해 실험 참가자는 선택 결과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12,000원을 지급받는다.

PDG의 보상 구조는 기본적으로 서로 협조하지 않는 것이 곧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나 이와 같은 개인의 합리성이 곧 전체적 불합리성을 야기하게 되는 구조를 담고 있다. 따라서 PDG에서 참여자간 전략 선택은 자신이 받을 보상 수준에 상대방의 선택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해 정도와, 상대방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Pruitt & Kimmel, 1977). 이러한 실험설계는 참여자의 일반신뢰 수준에 따른 행동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도구임을 증명하고 있다(Yamagishi, Kikuchi & Kosugi, 1999;

2) out-degree_{ik} = $\sum_{j=1}^N Z_{ijk} = Z_{ik}$ ($Z_{ijk} = k$ 연결망에서 행위자 i로부터 행위자들 j로 향하는 관계의 수)

Matsuda & Yamagishi, 2001). Hayashi, Ostrom, Walker and Yamagishi(1999)에 따르면 PDG에서 상대방이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구성원은 인간의 협력적 본성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일회성 PDG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로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대가 서로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는 믿음, 즉 자신의 일반신뢰 수준에 근거하여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간성에 대한 신뢰, 즉 일반신뢰 수준이 높으면 협조전략을, 그렇지 않으면 배반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표 2

본 실험의 보수행렬

		상대방의 결정	
		협 조	배 반
본인의 결정	협 조	8,000원	12,000원
	배 반	0원	4,000원

실험은 Yamagishi et al.(1999)의 실험디자인을 활용한 조기숙과 박혜윤(2004)의 실험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피험자 6-8명씩 한 조로 구성하였고 서로 아는 경우 한 조에 포함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미리 시간을 예약하고 동시에 모여 서로를 처음 만나게 된 피험자들은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약 20분간 사회자가 제시한 특정 주제(예. 지구온난화 원인, 영화 스포일러 행위 등)에 관한 자유 토론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형성하게 되었다. 각 참가자들에게 토론에 참여한 대가로 6,000원을 제공하면서 다음 실험에서 게임에 쓰이는 종자돈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렸고, 실험 상황과 보수행렬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이후 실험에 대한 피험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략 결정의 조합에 따른 보수를 계산해보도록 유도하였다. 피험자들은 제비뽑기로 파트너를 결정했고, 누구와 파트너가 되었는지, 각자가 어떤 전략을 선택했는지 서로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파트너 선정이 끝난 후 피험자 각자가 선택한 전략을 기록한 메모를 연구자가 전달받아 거래 비용 지불을 준비하는 동안 피험자들

은 일반신뢰와 공적신뢰 설문을 작성하였다. 실험 후 모든 참가자에게 실험 결과에 따른 보수와 문화상품권 5,000원을 사례하였다.

3) 설문문항: 일반신뢰와 공적신뢰

일반신뢰는 Yamagishi와 Yamagishi(1994)가 개발한 일반신뢰척도(General Trust Scale)를 활용하였다. 척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친절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뢰한다.’, ‘나는 타인을 신뢰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뢰한다’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공적신뢰 수준은 청소년가치관국제비교조사(최인재, 김지경, 임희진, 강현철, 2011)에서 사용한 ‘대통령에 대한 신뢰’, ‘언론에 대한 신뢰’,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3개 문항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신뢰와 공적신뢰는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게 하였고, 수집한 자료들은 빈도분석, 상관분석, 교차분석, 평균차이검증을 활용하여 각 신뢰 유형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기초분석

1차 조사집단은 총 493명, 2차 실험집단은 35명으로,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 목	구 분	N(%)	
		조사집단	실험집단
성 별	남	236(47.9)	18(51.4)
	여	257(52.1)	17(48.6)
학 년	1학년	408(82.8)	26(74.3)
	3학년	85(17.2)	9(25.7)
성 적	높은 편	77(15.6)	7(20.0)
	보통	352(71.4)	22(62.9)
	낮은 편	57(11.5)	5(14.3)
	무응답	7(1.4)	1(2.9)
경제적 삶에 대한 평가	풍요로운 편	128(25.9)	10(28.6)
	그냥 살 만함	330(66.9)	24(68.6)
	생활하기 어려운 편	33(6.8)	1(2.9)
	무응답	2(0.4)	0(0.0)
전 체		493(100.0)	35(100.0)

1) 구체적 신뢰 수준별 집단 구분: 파당분석과 외향중양성 분석

조사집단의 설문결과에 대하여 각 학급단위로 파당분석과 외향중양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향중양성은 각 학급의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Z점수로 변환하여 중위수를 기준으로 그 이상과 미만을 구분하였고, 두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신뢰 수준별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조사집단의 파당분석과 외향중양성 분석 결과

구체적 신뢰 수준	조사집단	실험집단
낮 음 ¹⁾	162(32.9)	8(22.9)
중 간 ²⁾	173(35.1)	8(22.9)
높 음 ³⁾	158(32.0)	19(54.3)

¹⁾파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외향중양성이 Z분포의 중위수 미만임

²⁾파당에 소속되어 있으나 외향중양성이 Z분포의 중위수 미만임,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³⁾파당에 소속되어 있고, 외향중양성이 Z분포의 중위수 이상임

2) 일반신뢰

(1) 기초통계

일반신뢰 6문항의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조사집단 .83, 실험집단 .88으로 관련된 문항들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표 5). 일반신뢰 전체 평균은 조사집단 2.74점, 실험집단 3.25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5

연구대상의 일반신뢰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와 문항신뢰도

문 항	조사집단		실험집단	
	M(sd)	α	M(sd)	α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2.59(.60)	.83	3.03(.89)	.88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2.54(.59)		3.09(.89)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친절하다.	2.70(.59)		3.20(.83)	
나는 타인을 신뢰하는 편이다.	2.77(.60)		3.26(.68)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뢰하는 편이다.	2.79(.75)		3.20(.68)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뢰한다.	3.05(.56)		3.71(.62)	
일 반 신 뢰	2.74(.46)		3.25(.64)	

(2)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Yamagishi와 Yamagishi(1994) 일반신뢰 척도는 6개 문항이 단일 요인으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표 6). 요인 1은 인간의 기본적 인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인성 신뢰’로, 요인 2는 타인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타인의 태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인지적 신뢰’로, 독립 요인인 마지막 문항은 상호작용에 의한 신뢰를 의미하는 ‘호혜적 신뢰’로 명명하였다³⁾. 두 집단 모두 세 하위 요인 중 호혜적 신뢰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집단에서 호혜적 신뢰가 독립 요인으로 추출된 것은 향후 신뢰 연구가 주목해야 할 결과이다. Hayashi et al.(1999)⁴⁾은 미국과 일본의 게임실험 결과의 차이에 대해 두 국가의 사회적 관계형성 양상에 있어 보답 여부에 대한 기대의 차이로 해석한 바 있다. 이처럼 개인이 관계 자체가 목적인 연계를 주로 경험했는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계를 주로 경험했는지에 따라 일반신뢰를 구성하는 호혜적 신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세대가 경험하는 구체적 신뢰에 대한 사회자본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3) 호혜성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 기준을 1로 설정했을 때 역시 2개 요인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추출되었다(누적 설명량 81.60%). 반면 요인 수를 1로 정하여 추출했을 때 누적 설명량은 61.48%로 나타났다. 일반신뢰 척도에서 이 문항이 제외된 최근 연구(Yamagishi, Li, Takagishi, Matsumoto & Kiyonari, 2014)의 경향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해당 문항을 제외하고도 일반신뢰는 2개 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4) 참가자들에게 파트너가 어떤 전략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일회성 순차적 게임을 시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호혜성 규범이 내면화된 참가자들은 그 규범의 이익 측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자신의 협력에 대한 파트너의 보답 여부를 얼마나 기대하는지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데이터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었는데, 미국 사회는 일반신뢰가 높아 타인에게 협조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상대방의 선택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반면 일본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가깝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호혜적 신뢰를 결정하는 데 상호 의존성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표 6

일반신뢰문항 요인분석 결과와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인성 신뢰	인지적 신뢰	호혜적 신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849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824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친절하다.	.794		
나는 타인을 신뢰하는 편이다.		.935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뢰하는 편이다.		.909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뢰한다.			.966
회 전	2,190	1,869	1,018
제 곱 합(%)	36,508	31,144	16,971
적 재 값(%)	36,508	67,652	84,623
M(sd) — 조사집단	2,61(.51)	2,78(.65)	3,05(.56)
실험집단	3,10(.77)	3,23(.67)	3,71(.62)

(3) 일반신뢰와 PDG 결과 간 관계

Mann-Whitney U⁵⁾ 검증 결과 PDG 전략에 따른 일반신뢰 수준의 분포의 차이(표 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U=67,50, p<.01$). 배반 전략을 선택한 19명 중 9명은 낮은 일반신뢰 수준을 보였고, 협조 전략을 선택한 16명 중 13명의 일반신뢰는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PDG 전략이 참가자들의 일반신뢰 수준이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5)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총 35명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집단 간 평균 비교는 불가능하여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독립된 두 군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할 때 Mann-Whitney 검증을, 독립된 세 군을 비교하고자 할 때 Kruskal-Wallis 검증을 사용한다. 두 방법은 모두 일종의 순위합 검정법이다.

표 7
일반신뢰와 PDG전략 간 관계

		일반신뢰			평균 순위	검정량
		낮 음	중 간	높 음		
PDG 전략	배 반	9(25.7)	10(28.6)	0(0.0)	13.55	U=67.50**
	협 조	3(8.6)	6(17.1)	7(20.0)	23.28	
	전 체	12(34.3)	16(45.7)	7(20.0)		

** $p < .01$

3) 공적신뢰 기초통계

공적신뢰의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조사집단 .79, 실험집단 .68로 관련 문항들이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조사집단의 공적신뢰 평균(표 8)은 1.96점, 실험집단은 1.78점으로 중간점인 2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8
공적신뢰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와 문항신뢰도

문 항	조사집단		실험집단	
	M(sd)	α	M(sd)	α
대통령에 대한 신뢰	2.00(.74)	.79	1.86(.69)	.68
언론에 대한 신뢰	2.13(.73)		1.83(.51)	
정치인에 대한 신뢰	1.76(.63)		1.66(.54)	
공적신뢰	1.96(.59)		1.78(.46)	

4) 신뢰유형 간 상관관계

두 집단의 신뢰유형 간 상관관계(표 9)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가운데, 조사 집단과는 달리 실험집단의 공적신뢰는 다른 신뢰 유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문항 간 상관관계

		구체적 신뢰	인성 신뢰	인지적 신뢰	호혜적 신뢰	일반신뢰
인성 신뢰	조사집단	.231**				
	실험집단	.502**				
인지적 신뢰	조사집단	.091*	.499**			
	실험집단	.295	.712**			
호혜적 신뢰	조사집단	.146**	.359**	.347**		
	실험집단	.164	.403*	.481**		
일반신뢰	조사집단	.199**	.872**	.828**	.571**	
	실험집단	.401*	.934**	.889**	.549**	
공적신뢰	조사집단	.090*	.268**	.170**	.152**	.258**
	실험집단	.025	.107	-.037	-.007	-.049

** $p < .01$, * $p < .05$

4. 신뢰 유형 간 관계 분석

1) 구체적 신뢰와 일반신뢰 간 관계

(1) 조사집단의 구체적 신뢰와 일반신뢰 간 관계

조사집단의 구체적 신뢰 수준에 따른 일반신뢰 평균차이(표 1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908$, $p<.001$). Bonferroni 사후 검증 결과 구체적 신뢰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c)은 구체적 신뢰 수준이 낮은 집단(a)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일반신뢰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10
조사집단의 구체적 신뢰 수준별 일반신뢰 평균 차이

		인성 신뢰			
		집단(N)	평균(sd)	F	사후검정
구체적 신뢰	낮음(161)		2.47(.54)	13.735***	a < c
	중간(170)		2.60(.49)		b < c
	높음(158)		2.76(.46)		
		인지적 신뢰			
		집단(N)	평균(sd)	F	사후검정
구체적 신뢰	낮음(161)		2.71(.65)	2.022	-
	중간(171)		2.78(.65)		
	높음(158)		2.86(.66)		
		호혜적 신뢰			
		집단(N)	평균(sd)	F	사후검정
구체적 신뢰	낮음(159)		2.93(.63)	5.530**	a < c
	중간(171)		3.07(.55)		
	높음(157)		3.13(.48)		
		일반신뢰			
		집단(N)	평균(sd)	F	사후검정
구체적 신뢰	낮음(158)		2.63(.47)	9.908***	a < c
	중간(170)		2.74(.43)		
	높음(157)		2.86(.44)		

a. 구체적 신뢰 수준 낮음, b. 구체적 신뢰 수준 중간, c. 구체적 신뢰 수준 높음

*** $p < .001$, ** $p < .01$

(2) 실험집단의 구체적 신뢰와 일반신뢰 간 관계 : 설문과 실험

실험집단의 설문 결과(표 11) 구체적 신뢰 수준이 낮은 구성원 중 일반신뢰가 높은 사례는 없었으며, 반대로 구체적 신뢰 수준이 높은 구성원 중 일반신뢰가 중간 수준 이상인 참가자는 18명(51.4%)으로 나타났다. Kruskal-Wallis H 검증 결과, 그 분포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df)=5.46(2)$, $p<.05$). 일반신뢰 요인별 검증 결과 중 호혜적 신뢰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구체적 신뢰가 높으면서 호혜적 신뢰가 높은 참가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11

실험집단의 구체적 신뢰수준 집단별 일반신뢰 수준: 설문

		인성 신뢰			평균 순위	검정량
		낮 음	중 간	높 음		
구체적 신뢰	낮 음	4(11.4)	4(11.4)	0(0.0)	10.88	$\chi^2(df)=8.59(2)^{**}$
	중 간	4(11.4)	4(11.4)	0(0.0)	14.56	
	높 음	1(2.9)	13(37.1)	5(14.3)	22.45	
	전 체	9(25.7)	21(60.0)	5(14.3)		
		인지적 신뢰			평균 순위	검정량
		낮 음	중 간	높 음		
구체적 신뢰	낮 음	4(11.4)	3(8.6)	1(2.9)	13.06	$\chi^2(df)=3.08(2)$
	중 간	2(5.7)	4(11.4)	2(5.7)	17.31	
	높 음	3(8.6)	10(28.6)	6(17.1)	20.37	
	전 체	9(25.7)	17(48.6)	9(25.7)		
		호혜적 신뢰			평균 순위	검정량
		낮 음	중 간	높 음		
구체적 신뢰	낮 음	1(2.9)	1(2.9)	6(17.1)	17.25	$\chi^2(df)=1.47(2)$
	중 간	0(0.0)	3(8.6)	5(14.3)	15.63	
	높 음	0(0.0)	3(8.6)	16(45.7)	19.32	
	전 체	1(2.9)	7(20.0)	27(77.1)		
		일반신뢰			평균 순위	검정량
		낮 음	중 간	높 음		
구체적 신뢰	낮 음	5(14.3)	3(8.6)	0(0.0)	12.00	$\chi^2(df)=5.46(2)^*$
	중 간	4(11.4)	2(5.7)	2(5.7)	15.69	
	높 음	3(8.6)	11(31.4)	5(14.3)	21.50	
	전 체	12(34.3)	16(45.7)	7(20.0)		

** $p<.01$, * $p<.05$

실험집단의 두 신뢰 유형 간 관계를 살펴보면(표 12), PDG에서 19명이 협조 전략을, 16명이 배반 전략을 선택한 가운데 구체적 신뢰 수준이 낮은 구성원은 1명만을 제외한 모두가 배반전략을 선택하였고, 중간 수준 이상 집단에서는 15명이 협조전략을, 12명이 배반전략을 선택하였다. Kruskal-Wallis H 검증 결과,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df)=6.16(2)$, $p<.05$).

표 12

실험집단의 구체적 신뢰 수준과 PDG 전략간 관계

		PDG전략		평균순위	검정량
		배 반	협 조		
구체적 신뢰	낮 음	7(20.0)	1(2.9)	12.19	$\chi^2(df)=6.16(2)^*$
	중 간	2(5.7)	6(17.1)	23.13	
	높 음	10(28.6)	9(25.7)	18.29	
	전 체	19(54.3)	16(45.7)		

국가나 제도에 대한 신뢰 형성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구체적 신뢰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로 기능하는 일반신뢰는 이론적으로 상호 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설문과 실험 모두에서 학급 내 친구와의 연계를 통해 강한 신뢰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일반신뢰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의 발견과는 다른 결과로 기성세대의 사적 연결망으로 인한 과잉 신뢰(이재열, 1998)와 청소년들이 형성하는 구체적 신뢰는 그 성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신뢰와 공적신뢰 간 관계

조사집단의 일반신뢰 수준별 집단에 따른 공적신뢰 평균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2.287$, $p<.001$). Bonferroni 사후 검증 결과 일반신뢰 수준이 낮은 집단(d)과 다른 두 집단(e, f)과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3). 반면 실험집단의 설문결과($\chi^2(df)=1.83(2)$, $p>.05$)와 실험결과($U=145.00$, $p>.05$) 모두 두 신뢰 유형 간 수준별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사집단과 실험집단이 청소년의 일반신뢰와 공적신뢰 간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두 신뢰 유형이 상호 정적 관계로 일관되게 나타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이다. 두 신뢰 간 관계는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입증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두 집단 간 신뢰 측정 환경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조사집단이 학급 내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한 반면 실험집단은 잘 모르는 타인들과 설문과 실험에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신뢰의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측면과 연결되어 서로 다른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3

조사집단의 일반신뢰 수준별 공적신뢰 평균 차이

	집단(N)	공적신뢰		사후검정
		평균(sd)	F	
일반신뢰	낮음(164)	1.79(.52)	12.287***	d < e
	중간(229)	2.05(.60)		d < f
	높음(85)	2.11(.61)		

d. 일반신뢰 수준 낮음, e. 일반신뢰 수준 중간, f. 일반신뢰 수준 높음

*** $p < .001$

3) 구체적 신뢰와 공적신뢰 간 관계

조사집단의 공적신뢰에 대한 구체적 신뢰 수준별 집단 간 평균 차이($F=1.966$, $p>.05$)와 실험집단의 두 신뢰 간 분포 차이($\chi^2(df)=2.63(2)$,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 신뢰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들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청소년의 공적신뢰가 다른 신뢰에 비해 그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정부 등 제도에 대한 신뢰는 이들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여 결정되는데, 한국사회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김인영, 2008; 김재신, 2011; 이재열, 1998) 공적신뢰 형성의 기회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공적신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그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구체적 신뢰는 일반신뢰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구체적 신뢰를 사회자본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4)는 관계망의 유형을 “물질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유사한 배경과 흥미를 가진 사람들 간 발달하는 강한 연결”인 유대형(bonding), “연령, 세대, 인종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연계형(bridging), “정부와 공동체들 간 관계와 같이 권력, 사회적 지위, 부의 상태가 서로 다른 사회적 층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연결형(link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자본은 사회 내 다양한 관계망 유형들이 균형을 이룰 때 창출된다. 즉 강한 사적 연결망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내 존재하는 연계형, 연결형 관계들과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문제로 보아야 한다.

청소년기의 연결망 특성에 대한 경험적 자료는 흔하지 않다. 청소년기와 가장 가까운 연령대인 대학생 표본에 대한 연구 결과⁶⁾와 비교하면 주로 유대형 관계망을 경험하는 청소년 세대의 일반신뢰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사적 연결망이 이 시기에 어떤 사회자본으로 기능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 세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망들의 균형관계가 어떠한지와 이러한 유대가 사회 내 다양한 대상들과의 관계로 확장되는 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결과는 청소년의 일반신뢰와 공적신뢰 간 관계이다. Glaeser, Laibson, Scheinkman and Soutter(2000)는 설문과 실험으로 측정된 신뢰 수준을 비교

6) 조기숙과 박혜윤(2004)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 1,197명의 일반신뢰 평균은 3.41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Yamagishi와 Yamagishi(1994)가 보고한 미국 대학생(평균 3.56), 일본 대학생(평균 3.20)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생의 일반신뢰 수준이 낮지 않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일반신뢰 평균 2.74를 총점 5점으로 환산하면 3.43으로, 한국 대학생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게 된다.

한 결과 설문이 신뢰 태도를, 실험이 신뢰 행동을 측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설문과 실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본 연구결과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앞서 구체적 신뢰와 일반신뢰 간 관계는 설문과 실험이 일치된 결과를 보였는데, 공적신뢰는 다른 두 신뢰 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실체가 모호한 대상에 대한 자기보고라는 점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Ajzen과 Fishbein (1977)은 인간의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이익적 행동, 그러한 행동이 향해 있는 목표물,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맥락과 시간적 요소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자기보고에 근간한 측정방식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인식과 함께, 측정 환경 등 신뢰 측정 도구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이 가지는 연계경험을 구체적 신뢰로 유형화하고, 일반신뢰 및 공적신뢰와 더불어 신뢰유형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파당의 특성과 파당 내 구성원간 실제적 역할에 따른 신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과 함께 실험집단의 크기와 방법론으로 인한 일반화의 문제, 그리고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간의 통제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신뢰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발견되는 신뢰 유형 간 논리적 관계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관계를 확인했고, 청소년의 구체적 신뢰에 대해 사회자본적 관점을 통한 재해석의 근거를 도출했으며, 마지막으로 측정방식에 있어 행동적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 게임실험이라는 도구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했듯 청소년의 구체적 신뢰는 사회자본으로서 일반신뢰의 근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구체적 신뢰에 대한 사회자본적 접근을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유대의 결과가 사회 전반에 전이 및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7)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이다. 세월호에는 안산 단원고 학생 324명이 탑승,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많아 전 국민에게 충격과 침통함을 안겼다 (박문각 시사상식편집부, 2014). 사건 발생 당시 해운회사뿐만 아니라 언론과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는 공적신뢰와 연관된 사회적 사건이나, 그 영향력을 결과 해석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내원 (2013). 세대집단의 매체이용과 사회자본이 제도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2030세대와 4050세대 비교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3(4), 5-42.
- 강수택 (2003). 사회적 신뢰에 관한 이론적 시각들과 한국사회. **사회와 이론**, 2, 157-210.
- _____ (2007). **시민 연대 사회**. 서울: 아르케.
- 김도균 (2013). 집합행동, 신뢰, 법: 공적 신뢰의 토대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54(3), 543-599.
- 김영인 (2003). 제16대 대선이 청소년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과 청소년 정치교육. **청소년학연구**, 10(2), 73-105.
- 김용학 (2007).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박영사
- 김우택, 김지희 (2002). 신뢰의 개념과 신뢰 연구의 맥락. 김우택, 김지희 (편.),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미시적 접근** (pp. 11-51). 서울: 소화.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03-137.
-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2001). **신뢰의 구조: 동·서양의 비교**. 파주: 교육과학사.
- 김인영 (2008). 한국사회와 신뢰: 후쿠야마와 퍼트남 논의의 재검토. **세계지역연구논총**, 26(1), 5-29.
- 김재신 (2011). 일반화된 타자, 정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16.
- 김현주, 김준영 (2008).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수준과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5(3), 1-27.
- 김현주, 노자은 (2011). 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 지지와 청소년의 자살충동간 인과관계 분석: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2), 135-162.
- 김희수, 윤은중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애착안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40, 93-115.
- 노자은 (2014). **청소년의 신뢰: 구체적 신뢰, 일반신뢰, 공적신뢰**.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문각 시사상식편집부 (2014). **최신시사상식**. 167집. 서울: 박문각.

- 박영신, 김의철 (2005).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91-11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07-145.
- 박정서 (2012).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5), 189-216.
- 박종민 (2003). 사회자본과 민주주의: 집단가입, 사회신뢰 및 민주시민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9(1), 120-151.
- 박종민, 김왕식 (2006).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149-170.
- 박현미, 박영신, 김의철 (2007). 학교유형과 학업성취가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신뢰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4(1), 1-18.
- 박희봉, 김명환 (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175-196.
- 송경재 (2007). 동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시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32, 199-227.
- 엄묘섭 (2007). 시민사회의 문화와 사회적 신뢰. **문화와 사회**, 3, 7-45.
- 오미섭 (2013).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1(3), 111-130.
- 우천식, 김태중 (2007). **한국경제사회와 사회자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원용진, 이동연, 노명우 (2006). 청소년주의와 세대 신화. **한국언론정보학보**, 36, 324-477.
- 이상미, 김의철, 박영신 (2006). 청소년의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신뢰와 불신: 토착심리학적 접근. **아동교육**, 15(4), 297-312.
- 이수인 (2010).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의 관계와 성별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민주화를 향한 기대와 사회적 관심 및 정보의 매개 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4(4), 162-203.
- 이용교, 이중섭 (2010).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사회참여의식, 사회적 신뢰,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2), 203-232.

- 이은희, 강은희 (2003). 청소년들의 지배성, 우월감, 자기찬미, 신뢰결핍과 집단따돌림 행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23-353.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사상: 여름호**, 37, 65-93.
- 이재혁 (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32(2), 311-335.
- 이종한 (1994). 연고주의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83-94.
- 이형진 (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법적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5(1), 183-208.
- 장수연, 정옥분 (2005). 한국 청소년의 나 의식과 우리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적 양육 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2(2), 111-132.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한국정치학회보**, 36(1), 87-112.
- 정지원, 강정환 (2012). 친밀한 친구집단의 크기와 청소년 비행. **한국사회학**, 46(5), 177-209.
- 조기숙, 박혜윤 (2004). 신뢰의 측정: 실험과 설문조사의 차이. **한국정치학회보**, 38(2), 95-116.
- 조남익 (2008). 청소년 집단활동 참여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미래청소년학회지**, 5(3), 177-198.
- 조남익, 이광호 (2009). 청소년 집단활동 참여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구조모형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7(2), 39-51.
- 최인재, 김지경, 임희진, 강현철 (2011). 2010년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한규석 (2000). 한국인의 공과 사의 영역: 공정과 인정의 갈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39-63.
- Ajzen, I., & Fishbein, M. (1977).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5), 888-918.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An Australian framework and indicators*. Sydney: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Bar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Blau, P. M. (2002). Reflections on a career as a theorist. In Joseph Berger & Morris Zelditch Jr, Lanham (Eds.), *New directions in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MD: Rowman & Littlefield.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 Brehm, J., & Rahn, W.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ook, K. S. (2005). Networks, norms, and trust: The social psychology of social capita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8(1), 4-14.
- Doney, P. A., Cannon, J. P., & Mullen, M. R. (1998).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national culture on the development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601-620.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Basic Books.
- Glaeser, E. G., Laibson, D., Scheinkman, J. A., & Soutter, C. L. (2000). Measuring trus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3), 811-846.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Hardin, R. (1995). *One for al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yashi, N., Ostrom, E., Walker, J., & Yamagishi, T. (1999). Reciprocity, trust, and the sense of control: A cross-societal study. *Rationality and Society*, 11(1), 27-46.
- Inglehart, R. (1989).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wachi, I., Kennedy, B., & Lochner, K. (1997). Long live community: Social capital as public health. *The American Prospect*, 8(35), 56-59.

- Knack, S., & Keef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1288.
- Levi, M. (1996). Social capital and unsocial capital: A review essay of robert putnam's making democracy work. *Politics and Society*, 2(1), 45-55.
- Lewis, J., & Weigert, A. (1985). Trust as a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63, 967-985.
- Luhmann, N. (1979). *Trust and power*.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Matsuda, M., & Yamagishi, T. (2001). Trust and cooperation: An experimental study of PD with choice of dependence. *The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 72(5), 413-421.
- Newton, K. (199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In Jan, W., van Deth, M. Maraffi, K. Newton, & P. F. Whitley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ledge.
- North, D.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harr, S. (2000). Officials' misconduct and public distrust: Japan and trilateral democracies. In S. J. Pharr, & R. D. Putnam (Ed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ruitt, D. G., & Kimmel, M. J. (1977). Twenty years of experimental gaming: Critiques, synthesi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8, 363-392.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affairs. *The American Prospect*, Spring, 35-42.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otter, J. B. (1967).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personal trust. *American Psychologist*, 26, 443-452.
- Vaitkus, S. (1991). *How is society possible?: Intersubjectivity and the fiduciary*

attitude as problems of the social group in mead, gurwitsch, and schutz.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Yamagishi, T., Kikuchi, M., & Kosugi, M. (1999). Trust, gullibility, and social intellig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145-161.

Yamagishi, T., Li, Y., Takagishi, H., Matsumoto, Y., & Kiyonari, T. (2014). In search of homo economicus. *Psychological Science, 25*(9), 1699-1711.

Yamagishi, T., & Yamagishi, M. (1994).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18*(2), 129-166.

ABSTRACT

Trust in adolescents: Specific trust, general trust, public trust

Roh, Jaeun* · Kim, Hyunju**

This study was aimed at classifying the way that adolescents operate as members of society in terms of specific trust and identifying its relationship with both general and public trust. The relationships among the trust types were studi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relationships of adolescence operate as a form of social capital. To this end, a survey and an experimental game were conducted regarding the levels of the three trust typ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both the survey and the experimental game, adolescents' specific trust was in a positive relation with general trust. Second, adolescents' specific trust did not indicate any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public trust.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trust and public trust revealed mixed results. This study is expected to form a contribution to discussions related to trust in that it deduced grounds for reinterpre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apital regarding teenagers' specific trust. Moreover, this study is valuable because it introduced experimental games as a tool to identify behavioral aspects in measurement methods, as opposed to simply relying solely upon evaluation methods based on self-reporting.

Key Words: adolescents, specific trust, general trust, public trust,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 analysis, prisoner's dilemma game

투고일: 2015. 3. 15, 심사일: 2015. 4. 29, 심사완료일: 2015. 5. 13

* Lecturer, Department of Adolescents, Chung-Ang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